



# 휘날리는 공화국기

(한 축구소녀의 이야기)

## 장 갑 철

### 첫번째 이야기

나는 이 이야기를 풍치수려한 룡라도, 맑은 물이 굽이쳐흐르는 대동강가에 아담하게 일떠선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호리호리한 몸매를 한 얼굴이 가름한 소녀애와 만나게 된 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진희, 나이는 열두살, 시청소년체육학교에 다니다가 국제축구학교에 입학, 경기마다에서 특기기술인 빼몰기로 득점을 성공시켜 팀의 우승을 안아오게 한 전도유망한 녀자축구선수후비, 처음 내가 알고있는것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를 만난 까만 눈의 소녀는 쑥스러운듯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이렇게 말머리를 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 2층건물벽 한가운데 부각된 우리 국제축구학교마크를 보셨습니까? 지구우에 금별처럼 빛나는 축구공을 형상한걸 말입니다.》

지구우에 부각된 축구공! 얼마나 깊은 뜻을 상징하는 말입니까.

《나는 훈련장으로 오갈 때마다 낮이나 밤이나 별처럼 빛을 뿌리는 우리 학교마크를 보며 마음속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군 합니다.

이름없는 한 소녀의 소박한 꿈을 활짝 꽃피워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은덕에 세계의 하늘높이 우리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는것으로 보답하리라고 말입니다.》

진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는 흥분으로 달아오르는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어린 처녀애가 사내애들처럼 공놀이를 좋아했다면 선생님도 아마 고개를 기웃거릴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공을 가지고 노는것을 소녀애들이 즐겨하는 줄넘기놀이보다 더 재미있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사내애들의 공차기놀이에 끼여들어 새로 사신은 고운 꽃신을 께뜨리고 철떡거리며 집에 들어온 나를 보고 기가 막혀 아버지에게 하소연했겠습니까.

《진희 아버지. 애 꼴 좀 보라요. 이 애가 처녀애가 맞긴 맞아요?…》

《허허… 이거 정말 우리 집에서 축구선수가 나오려는게 아니요?》

아버지는 새침해진 나를 향해 눈을 끄적이며 세면장으로 데리고가군 했습니다.

언제인가 내 생일날 출장길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축구공을 선물로 안겨줄 때 나는 너무 좋아 그날 밤은 공을 꼭 껴안고 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소조가 아니라 음악소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음악공부를 하다가 도중에서 그만둔것이 후회되어 나만은 꼭 재능있는 음악가로 키울 결심을 품고 음악선생님과 짜고 나를 음악소조에 넣었던것입니다. 글썄 나보고 피아노를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음감에도 밝았던지라 얼마 안 있어

소조선생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소조의 기등으로, 전도유망한 연주가가 될수 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차츰 음악에 취미를 붙이고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세계에 빠져 연주가로서의 재능을 키워나가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소조운영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동무들은 떠들썩 환성을 울리며 돌아갈 차비를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무슨 일이니?》

피아노교측본이랑 주섬주섬 가방안에 걸여넣던 나는 눈이 휘둥그래져 물었습니다.

《넌 정말 깜깜이구나. 빨리 가서 텔레비존을 보렴. 그럼 알게 될거야.》

맨 마지막으로 교실문을 나서던 애가 생긋 웃으며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멍달아 황황히 교실문을 나서니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수림이네 소조실에서 한무리의 애들이 재깔거리며 쏟아져나오더니 집을 향해 종종걸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시절부터 나와 친한 수림이는 남달리 공부를 잘하여 수학소조에 다니면서 앞날의 이름있는 여성과학자가 될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수림이가 내앞에 나타났습니다.

《진희야, 너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뭘하니?》

《응. 방금 집에 가려던 참이야. 그런데 오늘 텔레비존에서 무슨 재미난 영화를 한다니? 우리 소조동무들이랑 너희네 소조동무들이랑 시간이 늦겠다면서 막 달려갔어.》

《어마나, 너 아직 모르고있었니? 저녁 여섯시부터 우리 나라 청년여자축구팀이 열매전에 있는 세계청년여자축구결승경기에서 일등한걸 방영한단다.》

수림이가 눈이 울롱해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애는 내가 축구에 남달리 흥미를 가지고있는걸 알고있었거든요.

《그래? 난 어제 숙제를 마저 끝내느라 오늘순서를 못 봤거든. 알려주어 고마워.》

나는 벌써부터 쿵쿵 높뛰기 시작하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뒤에서 부르는 수림이의 목소리도 듣지 못한채 집을 향해 달음박질쳤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바람 텔레비존을 켜니 화면에서는 벌써 전반전 축구경기가 시작되고있었습니다.

《아니, 넌 가방도 벗지 않고 왜 말뚝처럼 서있는거냐?》

퇴근하여 방안에 들어서던 어머니가 의아

한 눈으로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걸 보라요. 지금 우리 나라 청년여자축구팀이 일등한걸 방영하고있어요.》

《어이구, 무슨 처녀애가 축구라면 꼼짝 못할가. 그래 오늘 교측본 몇번까지 나갔니?》

《엄마, 좀 조용!... 야, 아쉽네. 단번차 넣기하면 꼴을 넣을수 있었을걸. ...》

나는 여전히 텔레비존에 온 정신을 집중한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경기가 우리 나라 청년여자축구팀의 승리로 끝나자 우리의 람홍색 찬란한 공화국기가 이국의 하늘높이 휘날리고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시상대위에 올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 젖어든 나는 뜨거운것이 솟아올라 불을 적시며 또르륵 굴러내리는줄도 몰랐습니다.

이국땅 하늘높이 펄펄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

아, 얼마나 크나큰 걱정과 환희로 가슴높뛰게 하는 모습입니까.

체육선수라면 누구나 그 한순간을 위해 뛰고 또 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욕망을 품었다고 하여 누구에게나 그런 영광이 차례지는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하늘가에 총포성없는 승전의 기발, 나라와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시위하며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게 하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이겠습니까.

그 대답을 나는 그때로부터 펍 후에야 깨닫고 마음속깊이에 새겨넣을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였습니다.

수림이와 함께 소조로 가느라 운동장을 지나는 내앞으로 어디선가 까만 알락무늬의 축구공이 쏜살같이 굴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공다루기훈련을 하던 축구소조언니들이 흘린 공이었습니다.

축구공을 보는 순간 내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 빛났습니다. 날랜 동작으로 오른발끝에 힘을 주며 힘껏 공을 차보냈습니다.

《퐁!》

축구공은 허공에 타원을 그리며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축구공이 그렇게 멋지게 날아갈가요.

《야, 너 정말 선수들처럼 멋지게 차누나.》

수림이가 눈이 동그래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나는 해썬 웃었습니다.

《난 뭐 선수들처럼 멋지게 차면 안되니?》

나는 수림이 앞에서 우쭐하고싶어졌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고르고골라 사주신 맵시있는 여름신발을 신은채 공차기에 뛰어 들었다가 고운 여름신발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애두 참, 그런 고운 신발을 신고 공을 차는 애가 어디 있니. 엄마한테 욕먹게 됐구나.》하고 가볍게 나무라던 그 애였습니다.

《너 또 공차고싶은 생각이 난게 아니야. 어쩔...》

《흥, 난 뭐 축구생각하면 안된다니?》

이번엔 내가 눈을 할깃 치뜨고 수림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수림이는 물론 녀자가 축구를 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따라가서라도 따지고싶은 심정이었던것입니다.

《수림아, 하나 좀 묻자. 넌 내가 음악소조에 들어간 날 내가 음악소조보다 축구소조에 더 마음있어한다느길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지. <난 네가 음악소조에 들어간것이 정말 기뻐...> 흥, 그래 넌 자기가 하기 싫은거 해서 성공하는걸 봤니?》

마치 내가 음악소조에 들어간것이 수림이 탓이기라도 한듯 눈을 할깃 치뜨며 따졌습니다.

《진희야, 넌 음감도 정확하고 또 선생님도 내가 전도유망한 음악가가 된다구...》

《그만해!》

나는 귀구멍을 두손으로 꼭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사이의 이야기가 의외에도 좋지 않게 번져지자 나의 얼굴은 새초롬해졌습니다.

내 딱친구인 수림이 입에서까지 음악얘기만 나오니 정말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반발심은 굴뚝같이 치솟아 수림이는 물론 모두가 보란듯이 내 힘으로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공화국기를 높이높이 띄우고싶은 생각이 나를 부쩍 충동질했습니다.

그날 음악소조활동이 끝나자마자 축구소조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축구소조언니들이며 오빠들이 모두 따르는 선생님이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제격 응해주리라 생각했던것입니다.

한창나이때 체육단에서 활약했다는 갱뽕하게 생긴 소조선생님은 마치 내가 판세상 사람이기라도 한듯 눈이 휘둥그래졌다가 한참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학교 꼬마피아노연주가가 축구소조원이라... 허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뜬

게 아니요? 아니면 학생이 뭔가 삭갈려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왔다던가...》

소조선생님은 우스개소리로 내 생각을 둘러세우려는듯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전 꼭 축구선수가 되어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리겠습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 허허... 마음은 기특한데... 하지만 마음을 먹는다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지...》

소조선생님은 내가 기어이 답변을 받아낼 잡도리로 뿌리라도 내린듯 움직이지 않자 좀 주춤거리는 기색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보기로 하는게 어때. 아무리 학생이 키가 크고 육체적준비가 되어있다고는 해도...》

《선생님! 전 꼭...》

하지만 그 이상 더 내 말을 들을 차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후 다시 찾아갔지만 방이 잠겨져있어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한번 맘먹은 이상 물러서고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후둑후둑 비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축구소조생각에만 움해있다나니 어느새 재빛구름들이 하늘을 뒤덮은줄도 몰랐습니다.

때마침 핑긋 떠오른 생각에 수림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림아, 전번엔 정말 미안해. 괜히 너한테 신경질부렸어...》

《애두 참, 난 다 잊은걸 뭐...》

수림이는 역시 나의 좋은 동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것을 다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희야, 축구가 그렇게도 좋니?... 하루종일 공을 따라 뛰어다녀야 하구... 해빛에 얼굴이 타서 까매지구... 그렇지만 피아노야 어디 그렇니. 발이 아니라 손만 움직이면 되



고 해빛아래가 아니라 방안에서...》

《나도 피아노가 좋은줄 알아. 하지만 난 얼굴이 까맣게 타고 온종일 뛰어다닌다 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우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릴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을수 있어. 그렇지만 피아노는 아무리 잘 친다 해도 국기를 게양하는거야 없지 않니?》

그 애의 말을 가로채며 나는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널 꼭 이룬 난 연주가로 키우려는 어머니가 찬성하실가?!...》

《그래서 네 도움을 좀 받자는거야...》

나는 수림이 귀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음... 요 이악쟁이!...》

마침내 수림이도 응해나셨습니다.

나는 학교교재원 한옆에 놓인 돌의자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비는 제법 소리를 내며 땅을 두드려대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흠뻑 맞으며 나는 눈이 빠지도록 어머니가 나타날 집쪽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어머니가 우산을 손에 든채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가요.

내 머리위에 우산이 펼쳐지고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어머니는 아무말없이 그냥 서있기만 했습니다.

《애두 원... 어서 집으로 가자.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니?...》

《?!...》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야 나는 모든 사연을 다 알수 있었습니다.

어제 축구소조선생님이 어머니를 찾아갔던것입니다.

소조선생님은 이미 내 일을 다 알고있었던것입니다.

《우리 축구소조학생들도 그렇고 나도 웬일인지 그 애한테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구경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우리 나라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음쓰고계시는데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재능있는 축구후비를 키우겠다던 내가 진희와 같이 천성적인 취미와 재능을 가진 애를 내버려두면 되겠는가, 물론 그 애가 피아노도 잘타지만 어머니의 립장만 생각해서 주저한다면 그게 나라를 위한 교육자의 량심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나를 여기로 떠밀었습니다...》

《선생님!》

하도 절절한 소조선생님의 설복에 우리 어머니는 더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마음도 움직였던것입니다.

《진희야, 네 희망대로 원수님을 금메달로 받드는 축구명수가 되거라.》

《엄마.》

나는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딸만은 재능있는 음악가로 키워보려고 큰 기대를 가졌던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려니 오죽하랴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믿어주세요. 그 기대와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나는 뜨거움에 목이 메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습니다.

《요 이악쟁이! 넌 꼭 훌륭한 축구선수가 될거야.》

다음날 수림이도 나를 찾아와 축복해주었습니다.

## 두번째 이야기

소조선생님은 내가 축구소조에 첫발을 들여놓는 날 또다시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곧 현실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이 현실로 되자면 땀도 많이 흘려야 하지만 보다 중요하것은 어떤 마음으로 훈련하는가 하는것이다.》

(어떤 마음?)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새겨보던 내가 선생님의 말의 참뜻을 다 알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훈련에 들어가서부터 선생님의 요구성은 정말 높았습니다.

축구기초훈련이 끝나면서 더했습니다.

다양한 축구기술동작들과 전술, 립기응변, 정말 숨이 가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이겨냈습니다. 소조선생님도 나의 공다루기솜씨가 발전이 빠르다면서 기특한듯 어깨를 두드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을 더 굳게 다져먹곤 했습니다.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난 열걸음 걸을테야, 남들이 놀 때도 훈련하고...)

그래야 이 진희가 명성을 떨치는 축구선수도 되고 경기에서 우승하여 공화국기도 날릴수 있거든.)

운동장에서 땀을 동이로 쏟고서야 집으로 들어서곤 했습니다.

《아니, 이게 너 진희가 맞니? 어쩔 이렇게 됐니? 어마나! 입술이 부르튼걸 좀 봐… 자, 이걸 받아. 우리 어머니가 너에게 주는 머리고무줄이야, 땀에 잘 삭지 않는다면서. …》

나를 본 수림이가 놀란 얼굴로 걱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웃군의 학교에서 우리 학교 축구소조에 도전경기를 걸어왔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여긴 나는 이번 경기에서 승씨를 보여 모두를 깜짝 놀래울 결심을 단단히 다져먹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는 그렇게도 잘 물어돌아가던 공이 웬일인지 자꾸만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약이 오른 나는 전술이고 뭐고 공만 잡으면 무작정 내차곤 했습니다. 그렇게 차는 공이 문대안에 들어갈리 만무했습니다.

상대팀의 잘 짜인 공격, 불의의 역습앞에 우리 학교팀은 끝내 0:4로 무참히 패하고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총화시간에 나는 제 마음내키는대로 경기를 한데 대하여 동무들에게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내가 꽤 축구를 해낼수 있을까? 차라리 피아노를 계속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거야.)

이튿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동요를 안은채 소조에 나갔습니다.

운동장 한쪽구석에서 공다루기를 하면서도 착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나는 소조선생님이 곁에서 지켜보는줄도 몰랐습

니다.

《이건 뭐냐?!》

나지막하나 실망이 어린 선생님의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잠시후 선생님은 소조동무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학교뒤산을 향해 달리기를 지시하시었습니다.

여느때라면 썩썩 오르내리던 자그마한 야산이 그날은 왜 그리도 높아보이던지. …

썩썩 거친숨이 나오고 눈앞이 어질어질해나서 마침내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누가 쉬라고 했냐? 어서 일어나거라.》

어느새 내뒤편을 따르던 선생님의 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발심이 치솟았습니다.

《전… 더 못하겠습니다.》

《뭐? 못하겠다?! 달리기를? …》

《아니, 축구를 못하겠습니다.》

《?! …》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말없이 나를 지켜보더니 먼 하늘가로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알만 하다. 네가 왜 축구를 하려고했는지… 우리의 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날리겠다던 너의 속심은 판데 있었던 말이지?! …》

《판데 있었다구요?! 아닙니다. 그건 …》

《아니라구요?! … 하지만 이건 사실이다. 년 공화국기를 날리겠다는 그 마음속에 네 이름을 날리려는 속심을 물어두고있었어. 그러니 자그마한 난판앞에 무릎을 꿇은거야. …》

《예?》

한순간 무엇에 얻어맞은듯 머리가 멍해

지고 눈앞이 아찔해져 고개를 떨구어버렸습니다.

꿈! 누구나 앞날에 대한 꿈을 키울 때면 성공의 열매와 함께 차폐지는 명예를 생각하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섭섭한 생각에 눈물이 솟구쳐 또르륵 옷깃을 적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무거운 기분으로 소조에 나가니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장언니를 만난 나는 그만 가슴속에 철렁 돌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희! 너 아마 선생님의 속깊은 마음을 다는 모를거야. 어제 집단달리기훈련도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분주의를 고쳐주라고 조직하셨는데... 선생님은 불편한 몸으로 앞장에서 우릴 이끌다가 그만...》

《?!...》

나는 얼굴이 흠뻑이 되어 고개를 떨구어버렸습니다.

그날 나는 지도원선생님의 경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해기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자라며 영웅해병이 될 꿈을 지녔던 선생님이 이국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휘날리고 대원수님들께 기쁨드린 체육선수들이 부러워 축구에 뛰어들어 국제경기들에까지 나가 눈부시게 활약하여 축구명수가 된 이야기며 그후 어느 한 경기에서 입은 다리부상으로 더는 경기장에 나설수 없게 되자 축구후비를 키우는 일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심으로 우리 학교 축구소조선생이 된 사실이며...

그런데 나는...

(아, 나때문에 선생님이...)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쳤으나 이미 얼지른 물이었습니다.

어느덧 훈련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불꺼진 선생님방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습니다. 매 소조원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훈련조직과 전술안들을 연구하느라 늘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던 방이었습니다.

동천하늘에 우렁이 둥근달이 떠오르고 운동장 한옆의 점수판이 눈앞에 보이자 축구공을 안고 점수판앞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땀에 뜬 얼굴로 점수판에 련속 공차넣기를 하던 나는 갑자기 누군가 점수판앞에 나서는 바람에 흠칠 놀랐습니다. 달빛에 환한 웃음을 짓고 선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 소조선생님이었습니다. 소조실에 나왔던 선생님

이 혼자 훈련하는 나를 알아보고 다가온것입니다.

(아니? 앓으시는 선생님이? 그 불편하신 몸으로 이밤에...)

나는 공을 멈춘채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우리 진희가 끝내 이겨냈구나. 용타, 난 네가 그럴줄 알았다. 자, 이젠 저 꼴문대안으로 차봐라, 내가 막아볼게...》

선생님은 꼴문대 한가운데 나서며 나를 고무해주었습니다.

《...》

《괜찮다. 어서!》

마침내 마음을 진정하고 11m별차기공을 차듯 공을 날렸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번에는 오른쪽우로!... 이번엔 왼쪽구석공!》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문대안으로 스칠듯 들어가는 공을 막으려던 선생님이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비칠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다급히 달려가 선생님을 부축해드렸습니다.

《허, 진희의 공이 만만치 않은걸... 이젠 좀 쉬었다가 할가?》

부상입은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내색없이 오히려 나를 위해주는 선생님의 그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어졌습니다.

《훈련이 힘들테지?》

《예, 힘이... 듭니다.》

나의 솔직한 대답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힘이 들게다. 나도 힘든데 어린 처녀애인 네가 왜 힘들지 않겠니. 하지만 진희야, 너 우리 체육선수들이 왜 그런 어려움과 곤난을 이겨내면서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지 생각해봤나?》

《저...》

《바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란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조국이고 그 품속에서 누구나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고있지 않느냐. 자, 보렴. 네가 어린 나이에 축구소조에 망라되어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워가는것도 다 우리 장군님께서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축구학급을 내오도록 하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증시사상으로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안아온때문이 아니겠니.》

《…》

《우린 이 은덕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기에 앞서 대원수님들과 원수님의 이 사랑, 이 은덕에 보답할 마음을 먼저 지닐줄 알아야 한다. 그럼 그 보답이 무엇이겠니. 그건 바로 네 말처럼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려 우리의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는것이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자책속에 자기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금껏 선생님이 왜 나에게 그렇듯 엄한 요구성을 제기하였으며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고있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희, 깊이 새겨두거라. 한몸바쳐 조국을 받들려는 티없이 깨끗한 마음속에 공화국기를 고이 간직한 체육인만이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공화국기를 높이높이 휘날릴 수 있다.》

나의 가슴을 쿵 울려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밤에 앞으로의 생활에서 내가 깊이 새겨두어야 할 좌우명, 마음속 신념을 안겨주었습니다.

《진희는 피아노를 그만둔게 후회되지 않느냐?》

선생님은 달빛에 번쩍이는 나의 눈굽을 닦아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공을 차면서도 때로 피아노를 치는듯 한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공을 찰 때마다 피아노건반을 두드리는것 같습니다. 공다루기를 할 때는 <도레미레 도레미도> 하는 손풀이 음들이 떠오르고 속공으로 몰아가갈 때면 경음악의 빠른 대목을 치는것 같고 또 문전결속공을 찰 때에는 노래의 제일 높은 음을 땅- 하고 치는것 같습니다.》

《허, 진희가 아주 독특한 훈련방법을 생각해냈는걸. 피아노를 치는 심정으로 공을 찬다?... 그래서 진희의 공다루는 동작이 유연하고 룰동적인데가 있었구나.》

선생님은 대견한듯 나의 어깨를 두드리 주었습니다.

《그래그래, 그런 측면에서는 체육도 예술이지. 진희야, 이제부터 네가 우리 축구소조의 음악선생이다. 소조원들에게 매일 30분씩 룰동련습을 시키고 지도해야겠다.》

그러면 공다루기에서의 유연성은 물론 각자가 자기의 리듬에 따라서 개성을 살려나갈수 있다. 전번경기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것도 바로 이것이다. 어때, 할수 있지?》

선생님이 고무해주자 나는 힘이 용솨는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소조의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일떠선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은 정말 좋은 밤이다, 이렇게 진희도 일어서고 방도도 찾고...》

이제 너희들이 훌륭한 선수들로 자라나 세계너자축구계의 패권을 쥐게 되리라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등 뜨고 다리아픔도 다 달아난것 같구나.》

나는 선생님이 그렇듯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는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축구기술을 배워주기에 앞서 마음속에 사랑하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게 해주시려는 선생님!

아, 잊을수 없는 그밤이었습니다.

그후부터 우리는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1:1뺨몰기훈련, 등지며 달리기훈련, 반대 전환몰기, 정지훈련, 머리받기...

매 동작 하나하나가 높은 기술수준과 숙련을 요구하는 훈련이었지만 모두가 힘든 고비를 하나하나 이겨나갔습니다. 음악과 룰동까지 배합하니 확실히 경기움직임이 생기에 넘치는것이 알렸습니다.

한주일후 우리는 이웃군의 학교축구팀에 도전장을 보내게 되었으며 마침내 경기에서 3: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끝낸 다음날 소조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방에 갔던 나는 뜻밖의 사실앞에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진희, 어제 진행한 경기를 보러 나왔던 시청소년체육학교선생님이 너를 시청소년체육학교에 받아주겠다거나, 네가 발전 전망이 있다면서 말이다. 시청소년체육학교에 가게 된 널 축하한다.》

나는 쉽게 믿을수 없는 사실앞에 한동안 멍청하니 선생님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축구소조에 오래전부터 소조생활을 한 언니들도 있는데 내가 뽐히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떠나는 나를 바래주러 나온 소조선생님에게 작별인사를 드리느라니 어제날의 가지가지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소조선생님은 나의 손에 무엇인가 쥐여주며 이렇게 당부하는것이였습니다.

《진희, 이것은 내가 선수생활할 때 달고

다니던 공화국기휘장이다.

이걸 늘 가슴에 품고 어디 가서든 조국의 명예를 떨치기 위해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하길 바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손에 공화국기휘장을 받아든 나는 눈물이 핑 고여올라 선생님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어버리고말았습니다.

눈물에 젖어 작별인사를 올리는 나의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선생님은 정색한 얼굴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고마움의 인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러라.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자그마한 재능의 싹에 불과했던 네가 어떻게 시청소년체육학교에까지 뻗힐수 있었는지?》

《원수님의 사랑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나는 이렇게 학교소조선생님과 작별하였습니다.

그후 훈련의 날과 달을 보내는 속에서도 나를 참된 체육인으로, 조국을 빛내이는 축구선수후비로 키우기 위해 애쓰신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힘과 용기를 얻곤 하였습니다.

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의 훈련생활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힘든줄 몰랐습니다. 노래에도 있듯이 가고싶어 가는 길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소조선생님과 수림이랑 모두의 기대와 믿음이 있고 앞날에 대한 신심, 더우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는 맹세가 불타오르는데 왜 힘들겠습니까.

나는 더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훈련을 끝내 이겨내고 전국청소년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축구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조차 머리속에서 기술동작들을 편마하던 나는 신심드높이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원수님께서 너의 경기를 지켜보고계신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하자.》

우리들의 경기소식을 듣고 찾아온 소조선생님이 경기장에까지 따라나와 나를 고무해주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어 90분동안에 거의 모든 선수들의 공다루기시간은 3분정도란다.

매 선수들은 바로 그 3분동안에 조국의 명예를 안아올 결정적순간을 얻기 위해 90분동안을 뛰고 또 땀낸다.

그러니 그 90분동안에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심정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

나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심정으로 이악하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경기에서 나는 훈련에서 특기기술로 편마한 1:1빼몰기돌파로 상대팀 최종방어수들까지 멋지게 빼돌리고 끝내 상대편 문전에 보기 좋게 공을 차넣었습니다.

한갓 이쁨없는 소녀를 어엿한 축구선수후비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경기에서 우승하는것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하나의 일념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래를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뻐 울고 웃으며 발이 땅에 닿는 줄도 모르고 선생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절로 뜨거운 눈물이 샘처럼 솟아올라 량불을 적시며 흘러내리는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난 끝내 특기기술을 성공시켰어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렸어요.)

나는 목이 메어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일을 돌이켜볼 때마다 뜨거운 격정에 마음 설레이는것을 억제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글썽 아직은 모든것이 철부지소녀에 불과한 저에게 꿈같은 영광이 차례질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날 저의 경기숨씨를 눈여겨본 체육부문을 담당한 간부선생님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훌륭히 건설된 야외운동장에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를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 저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여자축구는 강의한 조선녀성들의 기질을 잘 살릴수 있는 승산있는 종목이라고, 앞으로 여자축구에 힘을 넣어 우리 나라가 세계여자축구에서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축구팀의 중간방어수소녀가 자기 특기를 발휘하여 상대팀에서 미처 정신차릴 새없이 빠른 속도로 역습을 들이대어 멋지게 결속했다면 아주 기특한 일이라고 칭찬하시며 그 선수를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키우면 앞으로 전도유망한 국가종합팀 선수로 자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고나서 나의 지난날 생활에 대하여 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우리 진회의 마음속에 공화국기를 안겨 준 소조선생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국은 공화국기입니다. 선수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공화국기가 우리 조국이며 김정일애국주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공화국기를 마음속에 안고살 때 우리의 꿈과 리상은 반드시 실현되며 우리 후대들은 강성국가의 주인들로 튼튼히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체육인후비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애국의 마음안고 자라는 이런 체육인후비들에 떠받들려 우리의 공화국기는 오늘도 래일도 창공높이 자랑차게 휘날리고 우리의 애국가가 높이 울리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세계우에 우뚝 솟은 체육강국의 나라로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아, 지구우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우리의 가슴마다에 아로새겨주시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직은 철부지 애어린 짝에 불과한 저를 따듯이 품안아 키워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기대, 휘황할 래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또 흘리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나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올라 한없이 자애롭고 숭고한 그 영상을 우러러 심장으로 부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녕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은 애어린 새싹도 거목으로 온 세상에 우뚝 솟게 하는 따사로운 해님의 빛발이었습니다.

그 해님의 빛발이 없었더라면 제가 받아안은 오늘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축구학교 모든 학생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날의 축구강국의 주인들로 더 튼튼히 자라날 것이며 온 세상에 우리의 찬란한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후 나는 축구선수후비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여기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오게 되었으며 오늘은 어엿한 여자축구선수후비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아주시어 세상 부러운것 없는 우리들에게 훈련조건, 생활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도록 또다시 친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날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 과정안도 바로잡도록 하시고 교실에 들리시여서는 허물없이 의자에도 앉으시어 책상을 접이식으로 해주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열난방체제로 건물내부에 랭온풍장치도 갖추어주어 학생들이 덥거나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우리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었습니다.

국제축구학교에서는 룰동체조와 음악을 통한 축구준비운동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시며 대책도 세워주시었으며 축구학교학생들이 세계축구발전추세를 잘 알수 있도록 해당 부문에 파업도 주시었을뿐만아니라 후방공급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하루공급량을 알아보고 국가종합팀에 공급되는 고기와 물고기, 청량음료며 과일들을 빠짐없이 공급하도록 하는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들려주시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여자축구선수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최상의 꿈, 그것은 애어린 짝모두를 친어버이사랑의 한품에 안아 어엿이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세계무대에 나가 우리의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는것으로 보답하는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싶었던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소원이 어떤것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진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는 오래도록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습니다.

문득 저 멀리에 백양나무 한그루가 한눈에 안겨왔습니다.

삶과 열정의 푸른빛으로 단장하고 키높이 자라는 백양나무는 불어오는 초여름의 미풍에 애어린 잎새를 살랑거리며 반짝반짝 빛을 뿌렸습니다.

나에게는 그 수천수만의 나무잎새들도 빛과 열로 생을 주고 싱싱하게 키워준 은혜로운 태양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듯싶었습니다.

친어버이의 사랑의 해빛이 낮이나 밤이나 따사롭게 이 땅을 비쳐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선군조선의 앞날은 찬연한 빛을 뿌리는 평양국제축구학교마크처럼 영원히 빛날것입니다.